

3선 연임 제한... 후보군 경쟁 치열

담양군수

최형식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담양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여러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며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김정오 담양군의회의장을 비롯해 박철홍 전 전남도의원, 김기석 담양군의원, 신동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이다.

김정오 담양군의회의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김 의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담양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행보를 넓히고 있다.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선인 김기석 군의원은 지역 현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담양군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와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김기석



김정오



박철홍



신동호

며 지역민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은 공직기간 중 모범 공무원 표창과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 공직 생활 중 행정·복지·유통·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이 전 국장은 군민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발굴한 경험을 자산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년 이상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해온 경제전문가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최형식 군수에 7%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최 이사장은 군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어 당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재선 전남도의원 출신으로 담양군 참여소통담당관을 역임한 박철홍 전 도의원은



이병노



최화삼

그동안 쌓은 폭넓은 의정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2002년 민선 3기 군수 비서실장을 지내 의정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내세워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호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군민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군정,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군정'을 슬로건으로 '무공천·무보수·무소속'을 강조하며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지지가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아왔던 박종원 전남도 의원은 도의원 재선 도전으로 마음을 굳혔다.

/김용현·담양 정일남 기자

잇따른 군수 낙마 '청렴' 핵심 키워드

함평군수

군수 2명이 임기 중 잇따라 낙마한 함평군수 선거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익 현 군수가 재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윤형 전 군수는 2019년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며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난 2010년 군수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한 안병호 전 군수 역시 성추행 혐의로 법적 구속되는 수모를 겪는 등 구실수에 올랐다.

이에 함평군수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청렴'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군수에 맞선 후보로는 정철희 전 함평군의회의장, 임용수 전남도의원, 정두속 전 KBS PD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CEO 출신인 이상익 군수는 '4·4·8 함평 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동차공장 개장,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군민과의 대화, 군수관사 폐지, 군수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빛그린산단 노동자 주거단지·산단 배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군수는 지난 11월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상익



임용수



정두속



정철희

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군수는 지난 11월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맞서 함평 군정에서 과장으로 퇴임한 정철희 전 함평군의회의장은 3차례 함평 군의원을 지내며 쌓은 풍부한 행정·의정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보궐선거에는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며 정치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선거때 '읍·면 군민 후보, 확실한 함평군수' 슬로건으로 밑바닥 표심을 다졌다.

임용수 전남도의원도 복당 과정을 거쳐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임 의원은 재선 전남도의원으로 함평군의원과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전남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를 위해 민주당 탈당까지 했으나 무소속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철희 후보를 지지하며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안

고 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경선 시 캠프 일원으로 그 몫을 다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두속 전 PD는 1984년 KBS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해 35년 간 근무했다. 방송사 재직 당시 '6시 내고향', '아침마당'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지역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 전 PD는 지난 보궐 선거에서 7대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며 표밭을 갈았지만 고배를 마셨다.

당시 보궐 선거에서 이상익 현 군수는 52.9(1만1,598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34.6%(7,582표)를 얻은 무소속 정철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함평군수 선거는 민선 7기 선거를 제외하고 2~7기 선거 모두 3명 이상의 다자대결이 없었다.

이외에도 김성한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정책위의장, 정문호 동북아평화경제협의회 이사, 조성철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도 허마평에 오르며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을 안고 있다. /민찬기·함평=윤예중 기자

김산 재선 도전...전·현직 지방의원 대결

무안군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김산 현 군수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무안군수 선거는 김 군수와 전·현직 지방의원들 간의 대결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무안군 운남면 출신인 김산 군수는 제 5·6대 무안군의원과 6대 무안군의회의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 전남도당 무안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맡아 무안반도 통합 반대, 군산공항 국제선 허용 반대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김 군수는 취임 후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특화단지 조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농 상생의 균형발전 도모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력지수 평가 '혁신적 성장 1위' 달성, 지방자치경영대전 농축 분야 우수상 등 군정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김 군수의 재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산



강병국



김대현



이정운

지난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김 군수와 대결을 펼친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은 전남도 도시계획전문위원으로 20여년간 활동했다.

도의원 8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안전행정환경위원회 위원장, 명품도시연구회장, 광주 군시설 이전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무안군의회의장인 김대현 의장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8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 의장은 1975년생으로 무안군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30대인 강병국 무안군의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1984년생으로 올해 38세인 강 의원은 군수 선거 출마를 확정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용현·무안=박주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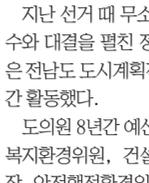
무안군 공직자 출신인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장도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민선 6기에 무안군의회의에 첫발을 들인 이 전 의장은 재선과 함께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평소 소통과 전문성을 의정 방침으로 삼고 '살기 편한 교육도시 낙안', '농촌소득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전남배구협회 부회장과 남악고등학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 인구 유입으로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무안군수 선거는 역대 선거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현·무안=박주현 기자



정영덕



이정운

유근기 군수 출마 여부 최대 관심사

곡성군수

무난하게 군정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은 유근기 군수가 아직까지 3선 도전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랜 선후배 사이이자 정치적 동지인 이상철 도의원과 관계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출마하는 쪽으로 추가 기출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철 도의원과 이재호 전 군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유근기 군수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3파전이 예상된다.

반면 활발한 텃밭 다지기 작업을 펼치고 있는 강대광 전 군의원과 박정하 곡성신문 대표, 이영진 전 군의회 의장, 조상래 전 도의원, 최용환 상인회장은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철 도의원은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곡성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의회 5·6대의원을 거치며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해 인지도도 높다.

이재호 전 군의원은 20여 년의 공직 생활과 군의원을 거치며 행·재정적 전



유근기



강대광



박정하



이상철

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진솔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창의성이 뛰어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장점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대광 전 군의원은 곡성군 5·6·7대 3선 의원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육과를 중심으로 탄탄한 기반이 있다. 풍부한 경험과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곡성신문 대표는 1999년부터 곡성신문을 창간해 22년간 운영해 왔기에 지역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밝다. 문화재학 박사로 곡성의 지역사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문화유산에 관한 특보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무소속 이영진 전 군의회 의장은 16년간의 행정 경험과 3·4대 군의회 의장을 지낸 의정활동으로 행정과 지역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조직력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조상래

무소속 조상래 전 도의원은 6대 군의원 출신으로 과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도의원 재선(8·10대)에 성공했다. 인맥이 넓고 지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도 밝다는 평이다.

최용환 곡성지마을전문시장 상인회장은 23년 동안 곡성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7대 군의원을 지냈다. 현재 무소속으로 곡성군체육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유두석 4선 도전...유력 경쟁자들 위협

장성군수

장성군수 선거는 유두석 현 군수가 3선 연임을 포함해 4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 유두석 군수는 오랜 공직생활과 풍부한 군정 지휘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을 잘 풀어왔다는 평가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가 대표적 성과다.

특히 '엘로우시티 장성'을 내세운 클러마케팅을 통해 장성군 브랜드를 전국화

했고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 등 공약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유두석의 가장 큰 장점은 민선 4·6·7기 3번의 장성군수 선거를 무소속으로 치리면서 다져진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다.

유두석은 지난해 3월 장성을 지역구로 둔 이계호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민주당에 입당, 당내 공천 경쟁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전자로는 전남도의원과 공직자 출신들이 거론된다.

유력 경쟁자로는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

장이 꼽힌다.

3선 전남도의원인 김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 당내 입지도 탄탄하고 지역 내 인지도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제7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9대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에는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했다.

전남도의회 내에서도 소통·협력을 강조



유두석



김점수



김한중



박노원



유성수

하며 집행부와 큰 마찰 없이 협치를 잘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약사 출신인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유력 후보다.

조선인 유 위원장은 의회 요직인 교육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머쥐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유두석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정을 밝히지 않고있는

박노원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실 행정관도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8회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박 행정관은 나주시의회 전문위원,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 담당,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과장, 전남도 투자유치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기초(나주시, 장성군), 광역(전남도), 중앙부처(행안부), 청와대까지 섭렵한 실력

자로 평가받는다. 박 행정관은 지방 정부를 비롯해 중앙 부처에서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이 장점이며 지난 2016년 장성군 부군수를 지내는 등 지역의 젊은 인재로 꼽히고 있다.

김점수 전 장성군도서관장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과 초당대학교 등 교육 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 장성지역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역대 장성군수 선거는 7번의 선거 중 무소속이 4차례나 당선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했던 지역이다. /오선우·장성=전일용 기자